

좁은 자벽의 생성에 관한 연구 (Formation of a narrow domain wall)

인하대학교 물리학과

유천열*

1. 서 론

강자성체에서 서로 다른 자화 방향을 가지는 자구의 경계면에 생성되는 자벽은 강자성체의 자기 이방성 에너지, 교환상호작용 에너지, 그리고 정자기적 에너지를 최소화 하는 조건으로 생성된다. 이때 정자기적 에너지를 무시할 경우 자벽의 두께는 $\delta_w = \pi\sqrt{A/K_u}$ 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본 연구에서는 자벽의 두께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국소적 층간 상호결합작용을 이용한 구조에 대해서 보고하고자 한다.

2. 국소적 층간 상호결합작용 구조

국소적 층간 상호결합 작용 구조란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박막의 일부 부분은 잘 알려진 강한 층간 상호 결합작용[1]을 가진 삼층막 구조를 지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단층막 구조를 가져서 박막의 일부 국소적인 구간만이 층간 상호결합작용을 가지는 구조를 의미한다. 이때 삼층막 구조에서의 층간 상호결합작용은 반강자성 결합을 가지도록 사이 층의 두께를 정하여 두 강자성체 층의 자화 방향이 반대 방향을 가지도록 하고, 두 강자성체 중에서 위층의 두께를 아래층에 비해서 두껍도록 하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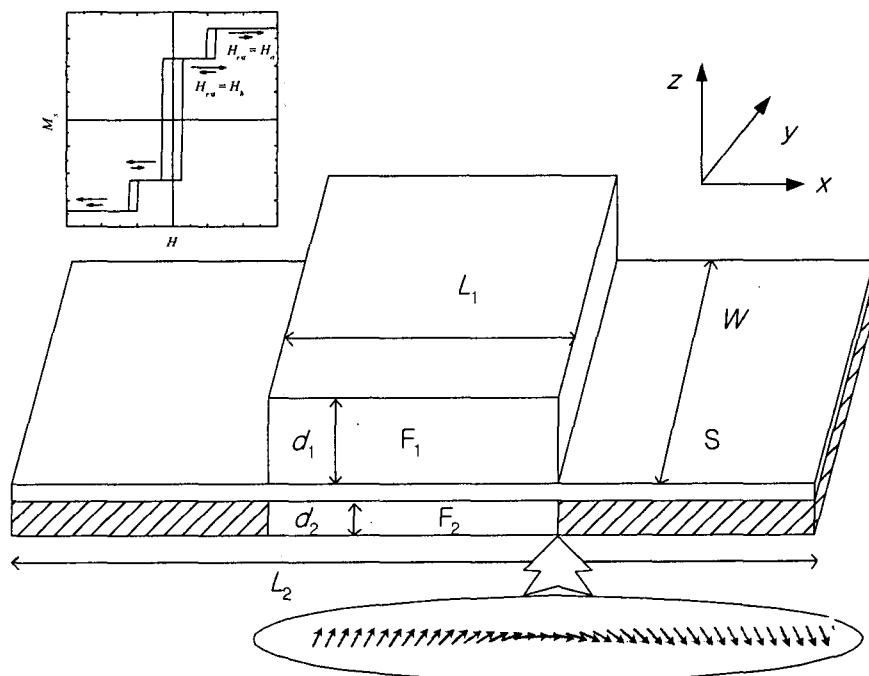


그림 1. 국소적 상호결합작용 구조와 synthetic ferrimagnet 인 삼층막 구조 부분의 전형적인 자화 곡선

synthetic ferrimagnet 구조를 가지도록 한다. 이때 편의상 삼층막 구조를 가진 부분을 구역 A, 단층 막 구조인 부분을 구역 B라 하자. 총간 교환상호결합 작용 에너지를 극복할 정도로 충분히 강한 외부 자기장이 $+y$ 방향으로 인가된 경우 이 구조의 모든 부분의 자화 방향은 $+y$ 방향을 향해서 정렬된다. 외부 자기장의 크기를 점차로 줄여 총간 교환상호결합작용 에너지가 Zeeman 에너지를 극복할 수 있는 크기가 되면 구역 A의 아래층은 강한 반강자성 결합에 의해서 자화방향이 $-y$ 방향을 가지게 된다. 하지만 구역 B의 경우는 여전히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$+y$ 방향의 자화방향을 가지므로 결국 구역 A 와 B 의 경계면 부근에서는 자벽이 생성되게 된다.

3. Micromagnetics Simulations

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국소적 총간 상호결합작용을 가지는 구조에서의 자벽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3차원 micromagnetics를 이용한 전산모사를 행하였다[2]. 다음 그림 2에는 그 결과를 도식 하였는데, 예상한바와 같이 적절한 외부 자기장하에서는 자화 방향의 분포가 구역 A와 B 사이의 경계면에서 급격히 변하는 자벽이 형성됨을 확인 하였다. 이때 자화 방향의 변화는 굽은 실선으로 도식한 일반적인 Neel 자벽의 변화에 비해서 현저히 급격함을 볼 수 있다. 특히 Neel 자벽의 경우 양쪽 방향으로 완만한 변화를 보이는데 비해서, 본 구조에서의 자화 방향의 변화는 구역 B의 경우는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, 구역 B의 경우는 총간 상호결합작용에 의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강하게 정렬되어 있으므로 결국 자벽의 두께가 좁아지게 된다. 자벽의 두께는 $\delta_w = \int_{-\infty}^{\infty} \cos(\theta - \pi/2) d\theta$ 로 정의하면[3], 그림 2에서처럼 Neel 자벽의 경우에 비해서 약 1/2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.

4. 참고문헌

- [1] M. D. Stiles, J. Magn. Magn. Mater. **200**, 322 (1999).
- [2] <http://math.nist.gov/oommf>
- [3] A. Huber and R. Schafer, "Magnetic Domains", Springer, Berlin, p. 219 (2000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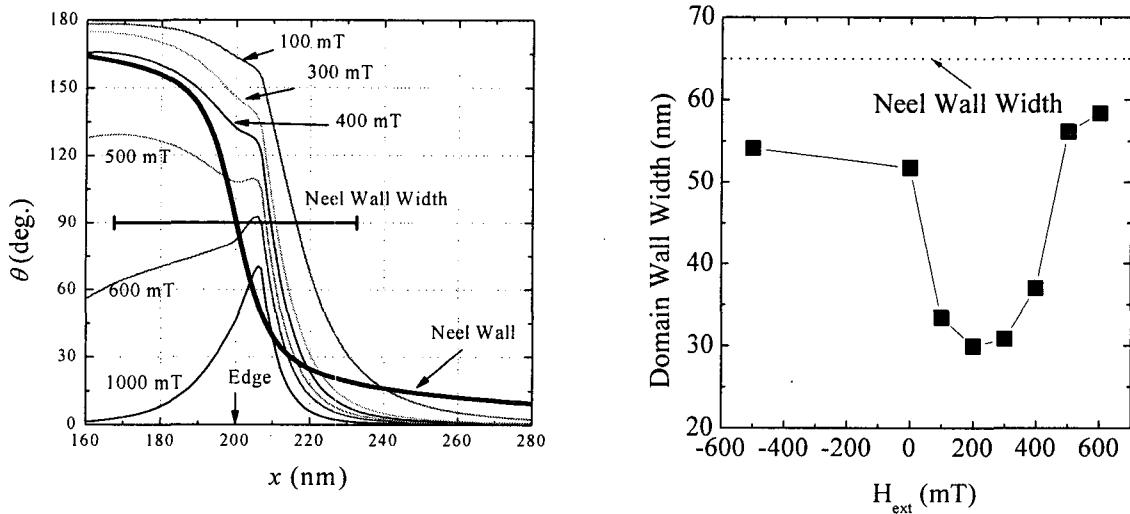


그림 2. 위치에 따른 자화방향의 분포와 외부 자기장에 따른 자벽 두께의 변화